

목회자 은퇴 준비 하고 계십니까?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중심으로)

발표자: 김영수(신수동교회 원로목사)

들어가는 글

“잘 살려면 잘 죽을 준비를 하여야 한다.” 몇 년 전 죽음과 삶의 학회에서 들었던 어느 교수님의 강의 중 인상 깊은 구절이다. 은퇴를 하고 보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되게 목회하는 것 이상으로 은퇴를 잘 준비해야하겠기에 예수교대한성결교회(이하, 예성)의 미래와 부흥에 기여하고자 성결신문에 논고한다. 본고는 은퇴목사님들과 현직에서 시무하시는 목사님들과 사모님들 그리고 장로님들의 의견을 설문한 결과를 중심으로 한다.

1. 왜 목회자 은퇴 준비를 하여야 하나?

1) 교회와 목사자의 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하여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본부가 2017년 3월 19일 발표한 ▶ “한국 교회에 대한 사회 신뢰도”에서 기독교인은 교회를 신뢰한다 59.9%, 비신뢰한다 15.5%로 응답한 반면 비기독교인은 교회를 신뢰 10.7%, 비신뢰 59.8%로 응답했다. 한편 ▶ 기독교의 목사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으로 윤리·도덕성(49.4%), 물질추구성향(12.5%), 사회현실이해 및 참여(11.2%), 교회성장주의(9.3%), 능력과 리더십(7.3%), 권위주의(6.2%) 순으로 응답했다. ▶ 기독교인의 신뢰도 제고에 대한 응답은 정직하지 못함(28.3%), 남에 대한 배려 부족(26.8%), 배타성(23.2%), 사회에 대한 무관심(9.4%), 능력과 리더십(7.8%) 순이었다.

아마도 일반 조사기관에서는 더욱 교회와 목회자의 사회 신뢰도가 심각하리라 본다. 종교개혁 500년을 맞이한 지난 2017년부터 교회와 목회자가 각성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하나님과 사회에 인정받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도록 하기 위하여 반드시 목회자 은퇴 준비를 잘하여야 할 것이다.

2) 후임 목사 청빙에 따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한국교회목회자윤리위원회 주최 "원로목사와 담임목사의 바람직한 관계"라는 주제 발표에서 영남신대 기독교윤리학 김승호 교수는 "원로목사와 후임목사 사이의 갈등은 심리적, 문화적, 역사적, 신학적 원인 등 교회 내외의 다양한 원인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이런 갈등으로 당사자들과 교회구성원 전체가 고통을 겪고" 있으며, 그 원인을 “원로목사가 후임목사의 목회철학이나 목회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후임목사가 원로목사를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이유도 있고, 또는 후임목사가 목회 수행 과정에서 원로목사의 직간접적으로 비판"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때문에 김 교수는 바람직한 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원로목사에게 ① 후임목사에게 리더십을 이양했다.② 은퇴한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다. ③ 은퇴 이후에 직면할 심리적 감정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어 ▶후임목사에게 ① 원로목사에 대한 교우들의 향수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교우들은 후임목사에게 새롭고 차별된 목회를 알 필요가 있다. ③ 부임한 이후 리더십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지만 급격한 변화 시도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④ 특별한 날 교회에 원로목사를 초청하여 설교나

축도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인들**에 대해서도 그는 ① 원로목사와 후임목사의 심리적 정서적 감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② 원로(은퇴)목사 부부에 대해 교회가 재정적 지원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③ 은퇴를 앞둔 목사가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본인이 경험한 바로는 후임 목회자 청빙에 관해 감찰회나 지방회가 과도하게 관여하면 성도들과 일반 사회인들에게 부정적 시각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후임 목사 청빙은 헌장에 의거 하나님과 그 교회의 성도들이 원하는 대로 진행 하는 것이 합당하고 생각한다.

3) 은퇴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갈등 개선을 위하여

대한민국은 지금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으며 교회도 고령화 추세이므로 은퇴 목회자의 예우가 새로운 과제이다. 그래도 예성은 연금제도가 있어서 다행이지만 설립 당시 제도대로 실행하지 못한 탓에 갈등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예성 헌장 37조에 “교역자는 뭇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어 세상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헌신한 「하나님」의 사자요, 영혼의 목자요, 교회의 지도자이니 온갖 일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다. 지금까지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족한 사람도 교회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최선을 다해 헌신해왔다.

그러나 ▶체력도, 심력도, 재력도, 영력도 점점 감소되는 것이 은퇴하신 선배 목사들 대다수의 공통된 견해를 볼 때 은퇴 목회자 준비가 잘 되어야 하겠다.

▶본인은 섬기는 교회 당회와 성도들의 배려로 사례비 60%(헌장 53조 8항에 의거)는 다 지급받지 못하지만 생활에 지장 받지 않게 생활비를 지급받고 있지만 대다수의 미자립 교회들은 교회 사정 때문에 헌장대로 이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미리 준비하지 못한데서 오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4) 예성 목회자들의 은퇴 준비 인식을 위하여

▶한국민족백과사전에 “오늘의 노인문제를 ‘노인의 사고(四苦)’라 하여 ① 노인의 경제적 빈곤, ② 노인의 보건·의료문제, ③ 노인의 무위(無爲)·무료(無聊), ④ 노인의 사회적 소외 등을 들고 있다.

▶목회자도 예외 일 수는 없다. 헌직에 계실 때에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교회 부흥을 위하여 새벽부터 밤늦도록 헌신하며 사역하다가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은퇴 후에는 사역이 축소되므로 오는 외로움과 소외감, 건강이 따라 주지 아니하고 재정 빈곤을 느끼는 실정이다.

▶본인이 설문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응답 은퇴목회자의 연령은 71-80세(76%), 81-90세(24%), 목회 사역 연수는 만 21-30년(14%), 31-40년(29%), 41년 이상(57%)으로 헌직에 계실 때 은퇴 계획 준비에 없었다(67%), 건강관리(5%), 재테크와 자격증 보유(0%), 농업 및 현재 목회활동(19%)로 나타나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은퇴 준비를 안 하고 목회에 전심전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신학교 재학중에만 하여도 교단에 60세이상되신 목사님들이 10명 이만이었지만 2018년 현재 은퇴 목회자 수는 100여분으로 앞으로 늘어날 추세이다 그러므로 미래 교단 발전을 위하여 은퇴목회자 예우에대한 준비가 절실하다고 본다.

(1) 경제적 측면

▶2018년1월11일자 국민일보 기사에 전국목회자 사례비 평균이 5년전만해도 213만원이었으나 지

난해는 176만원으로 하락하여 목회자들이 맞벌이,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고 밝히고 초교파적으로 목회자의 46%가 월 사례비 150만원 이하라는 기사를 보았다. ▶본인의 예성교단 은퇴목회자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의료비를 제외한 월평균생활비 지출은 1백만원이하(24%), 1-2백만원(48%), 3-4백만원(24%) 무응답(4%)로 나타났으며, 은퇴 후 주 수입원은? 교회(76%), 자녀들(0%), 정부지원(10%), 기타(14%)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생활비 만족도에 대하여는 매우 만족(5%), 만족(33%), 보통(43%), 부족(14%)으로 응답하셨으며 ▶은퇴 사모님들에 대한 설문에서 은퇴 후 가장 불편을 느끼시는 것에 대한 질문에 질병(20%), 영적 갈등(25%), 재정 빈곤(30%), 기타(15%) 또한 담임 목회자의 사례비는 150만원이하(40%), 150-200만원(32%), 200-300만원(12%), 300만원이상(16%)로 ▶장로님들에 대한 질문에서는 담임 교역자의 사례비를 지급하는지의 질문에 150만원이하(0%), 150-200만원(5%), 200-300만원(16%), 300만원이상(74%)으로 나타났으며, 목사님의 은퇴 후 생활비 지급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에 대한 질문에 현장대로(42%), 교회형편대로(63%), 안 해도 된다(0%) 또한 은퇴 목회자의 주 수입원에 대하여 교회가(79%), 자녀들이(0%), 정부에서(11%), 연금(11%)로 교회 입장에서 장로님들은 최대한 목회자 은퇴 후를 대우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정한 최저 임금이 시급 7,530원 월급은 160만 정도이므로 현직 목회자들이 60%이상인 최저 사례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목회자의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설문에서 참여한 은퇴 목회자들은 재정적으로 풍족하지는 않으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현직에서 시무하는 목회자나 은퇴한 목회자 중에 생활고를 느끼며 생계를 위해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 또한 교회와 교단의 연구 과제이다.

(2) 건강관리 측면

목회자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사회 건강 시설도 많이 있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예전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나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은퇴 목회자의 현직에 계실 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했나? 못하였다(67%), 중단(10%), 주 3회(24%), 매일(0%)로, 운동을 못한 이유에 대하여는 몸이 불편(5%), 사역에 바빠서(57%), 취미가 없어(10%), 무응답(19%), 무슨 운동을 하셨는가? 맨손체조(29%), 조깅이나 헬스(14%), 걷기(24%)로 응답하셨다. 또한 ▶현재 담임목회자들에게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가? 못한다(24%), 1주 1회(32%), 주 3회(32%), 매일(16%)로, 무슨 운동하시나? 맨손체조(4%), 수영(4%), 조깅이나 헬스(40%), 탁구, 축구, 걷기 등 기타(36%)로 운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는 몸이 불편하여(4%), 사역이 바빠서(24%), 취미 없어(16%)으로 응답해 주신 결과를 보면 현직 목회자들은 은퇴 목회자들에 비해 건강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직 사모님에게 건강을 위해 운동하시는지 질문에 못한다(26%), 1주1회(26%), 주3회(43%), 매일(2%), 무슨 운동하시나? 맨손체조(6%), 수영(13%), 조깅 및 헬스(38%), 걷기, 자전거, 탁구 등 기타(26%) 사모님들은 다양한 건강관리를 하신다. 무엇보다 노후의 건강은 젊어서부터 꾸준히 준비하여야 하지만 목회를 성실히 하다보면 건강 관리할 시간이 부족하다. 하나님 은혜로 살기는 하지만 노후에 고생을 하게 되고 따라서 재정적, 심리적, 영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장로님들의 목회자에 대한 건강관리에 대해 잘 모르겠다(29%), 조깅이나 등산(14%),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24%)로 나타나 목회자의 건강관리에 대하여는 모두가 공감은 하나 실질적으로는 건강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무 목회자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는 질문에는 목회자 자신(67%), 교회(10%), 정부(24%)로 나타났다. 종합하면, 목회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은 있으나 그 책임은 목회자 본인에게 있고 목회 사역에 전념하다 보면 제대로 건강

관리를 하지 못하기에 은퇴 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 또한 목회자의 건강관리는 연구 과제라하겠다..

(3) 사회활동 측면

설문에 ▶은퇴 전 현직에 계실 때 노인 복지 하셨는가 질문에 못했다(48%), 5년이하(14%), 6-15년(24%), 15년이상(14%),로 현직에 계실 때 즐겨 참여하신 분야는 운동(7%), 세미나 참석(33%), 등산(1%), 부흥회, 강의, 기도원 성경공부 등(38%)으로, 즐겨 읽으신 서적은 교양(5%), 기독교(95%), 즐겨 참석하시던 세미나는 교회성장(81%), 교양강좌(5%), 일반(5%), 총회세미나(5%)였으며, ▶은퇴 사모님들 질문 응답내용에 몸과 마음과 영적 상태에 대한 질문에 매우불편(10%), 불편(20%), 보통(30%), 불편 없다(30%), 은퇴 후 가장 불편은 질병(20%), 영적갈등(25%), 재정 빈곤(30%), 무응답(15%), 가장하시고 싶은 분야는 가정 돌봄(20%), 여행(45%), 사모 모임(20%), 농촌생활 및 운동(20%) 또한 ▶시무 담임 목회자에게 주로 읽은 서적은 교양(24%), 기독교(80%), 문학(8%), 부동산 및 시사(16%) 최근 참석하는 세미나는 교회성장(12%), 교양(4%), 신앙(40%), 종교법인세 동영상 등 기타(36%) 은퇴 후 계획을 위하여 없다(28%), 건강(28%), 재테크(16%), 자격증(12%), 선교 및 사회봉사(16%) 은퇴 후 원하는 사역은 설교(12%), 후배양성(24%), 사회봉사(40%), 상담 전도 선교 등(24%)으로 나타나 비교적 은퇴 목회자보다 현직에 있는 목회자의 사회봉사 선호도가 높고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영적 측면

영적측면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은퇴목회자들이 현직에 계실 때 참석했던 세미나는 교회성장(81%), 교양강좌(14%), 일반상식(5%), 총회세미나(5%)로 주로 읽으셨던 서적은 교회(5%), 기독교신앙서적(95%)으로 오직 교회 부흥을 위하여 전심전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설교나 강의 월 몇 회 하시나요?는 거의 안함(24%), 2회이하(49%), 3-4회(10%), 5회이상(19%)로 나타났으며 ▶은퇴 사모님들에 현직에 계실 때 즐기시던 분야는 운동(15%), 세미나(5%), 가사 일(70%), 철야기도(10%)로 사모님들은 일선에 나서기보다 가정을 돌보시며 목사님들의 사역을 도우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직에 있는 목회자들은? 주로 읽은 서적은 교양(24%), 기독교(80%), 문학(8%), 부동산 등 일반서적(16%), 세미나 참석은? 교회성장(12%), 교양(4%), 신앙 강좌(40%), 동영상, 종교세법 등(36%), 은퇴 후 어떤 사역을 하고 싶은가? 설교(12%), 후배양성(24%), 사회봉사(40%), 상담, 선교, 저술(24%)로 ▶현직 목회자 사모님들에 대해 주로 읽으신 서적에 대한 질문에 교양(19%), 기독교(57%), 문학(4%), 성경(15%) 최근 참여하는 세미나는? 없다(13%), 찬양단(64%), 신앙세미나(15%), 취미활동, 기도모임(11%)으로 나타나 은퇴목회자보다 현직에 있는 목회자가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은퇴 목회자들은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어떤 형태이든 사역을 하기 원하며 평생해온 설교를 지속하고 싶어 했다. 반면에 후임 목회자나 장로님들은 은퇴 목회자들이 교회 운영 참여나 설교를 자제하고 기도하며 바라만 보아주기를 원한다.

2. 어떻게 목회자 은퇴 준비를 하여야 하나?

1) 설문응답자의 제언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로목사님께서 총회나 후배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 ① 건강문제: 건강을 위해 젊었을 때 운동하는 생활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 ② 경제문제: 교회로 하여금 국민연금이나 교단예금을 통해 은퇴준비금을 모으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교단예금 재단에 적극협력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원로가 수고한 결과로 교단이 이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원로를 대우했으면 합니다.
- ③ 은퇴준비: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일찍부터 미리 준비해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제일 후회하는 부분이며 후배들도 은퇴 후를 생각하고 미리준비(건강, 물질 등)하면 좋겠습니다. 노후는 준비 한 사람과 못 한 사람의 차이가 많다. 노후를 위해 40세부터 준비하란 말처럼 목회자도 목회초년부터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은퇴가 있습니다. 은퇴 후 생활 계획을 가지세요. 성도들에게는 공적 충성면을 충실히 보이고 사적으로는 은퇴준비를 꼭 하여라
- ④ 사역문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조건, 능력 등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후임자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은퇴 예정자는 마음을 비우고 후임자가 마음껏 사명감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하시오

(2) 은퇴 사모님께서 교단이나 교회에 은퇴 목회자를 위해 하시고 싶은 말씀

- ① 건강문제: 건강이 최고다
- ② 경제문제: 교회에서는 원로목사에 대해 지급하는 생활비를 꾸준히 지속해주면 좋겠습니다.
- ③ 교단에 건의: 교단과 교회가 은퇴목회자를 잘 보살필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교단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일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교단에서 은퇴사모님들의 모임을 만들어 친교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 교단에서도 은퇴자에게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 교육을 하였으면 한다. 교단에서는 은퇴 할 목사님 사모님이 은퇴 후 생활과 환경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
- ④ 교회에서 은퇴 15년 전 사택을 선물로 받아 은퇴 때 편안하게 은퇴 할 수 있었다.
- ⑤ 은퇴준비: 노후준비를 미리미리 많이 해야 한다
- ⑥ 후임목회자에게: 기도하세요. 사명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은퇴 목회자가 건강하실 때 한 달에 1회 이상 설교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 은퇴 사모님께서 후배 목회자 부인을 위한 권면

- ① 건강: 건강관리와 은퇴준비를 미리 하시고 부름 받을 때까지 건강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 ② 경제: 물질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은퇴하면 우리를 책임질 교회도 사람도 없다. 기본적인 생활(연금보험) 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어야 한다.
- ③ 교회: 목회사역에 열심을 다해서 협력하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아 주어야함. 은퇴 준비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회 목회가 먼저이기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야 하고 노후준비 없이 은퇴하면 고생하니 제 2의 삶이 시작되므로 값진 생활을 해나가는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은퇴 후 생활을 미리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공사를 구분해서 양면에 균형 맞게 철저하게 가정경제를 준비하고 취미생활하세요

(4) 담임목사가 은퇴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

- ① 건강: 건강관리 위해 운동하셔서 건강하게 사모님과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고, 건강관리를 위

하여 걷는 것을 추천합니다.

② 교단: 교단정치에서 본을 보이고 참여하지 않고, 은퇴와 함께 모든 직에서 떠나셨으면 합니다.

③ 교회: 교회 일에 너무 관여 안하시면 합니다. 후임에게 내려놓으시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셨으면 좋겠음. 새벽도 나오시고 금요기도회도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④ 사역: 은퇴 전 영적으로 많은 준비하여 아브라함처럼 또는 모세처럼 쓰임을 받으시고 세상에서 70세는 아직 할 일이 많다고 하는데 목회 은퇴하고 하나님 사역 다했다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젊어서 믿음으로 영생 보험 만들어 놓고 보니 "교회와 성도들만 보고 달리다가 현실은 그게 아니신 것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은퇴하면 전도할 시간이 더 많아지니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면서 은퇴를 기쁘게 맞이했으면 좋겠네요. 평생을 강단에서 사역했으니, 이제는 술선수범하여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하는 생활이 되어야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평신도로 돌아가서 전도합시다. 외로우신 것은 공감은 가는데 후배들에게 설교 부탁하시는 것을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⑤ 사회봉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돈, 명예, 임기 기타) 오직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건강하실 때 사회봉사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에 지원하거나 경미한 활동으로 봉사 및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니 만큼 누구, 또는 무엇을 의지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가 준비 잘하여야 하겠고, 성경 손에서 놓지 마시고, 기도하시며, 계속 공부하시고 후배들에게 존경받는 선배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5) 담임목사가 총회에 은퇴목회자들을 위한 제언

① 교단: 총회에서 할 수만 있다면 어려운 은퇴목사님들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관리부족인 것 같아 아쉽습니다. 의무감을 갖도록 독려가 필요합니다. 은퇴여전도사님의 성락원 같이 은퇴 목사들에게도 이런 기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총회 대의원 자격을 목회 10년 이상으로 하여 목회자들은 빠지고 은퇴목사님과 은퇴 장로가 다수가 참여하도록하고 총회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의 개인정보, 특히 재능, 자격증여부 파악하여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세우고 재정지원이 안되면 달란트 따라 활동하실 수 있도록 하고 총회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 총회에 의지하는 건 무리라 생각합니다. 현장에 퇴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명시했으면

② 교회: 교회 세습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며 실력 있는 목사에게 교회 이임하며 정치적으로 후임 목사를 세우지 않았으면 합니다.

③ 연금: 교단연금 제도 개선(재가입도 조건이 안된다하고, 초창기 가입했는데) 다른 기관들(교육기관, 군인, 경찰) 국가에서 지원하면서 연금 보장되듯이 교단 외 수익금을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힘써주는 연금정책이 되었으면 합니다. 현 연금제도에 불신이 듭니다. 은퇴 목회자들에게 최소 50만원씩이라도 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총회는 은퇴자 은급을 위해 적정금액을 은급재단에 할애하도록 하여 교단에서 평생 목회해도 은퇴금 연금의 생활보장도 안 되는 단체를 과연 누가 교단을 위해 헌신하겠는가? 연금수령 목사님은 그래도 덜하시겠지만 없으신 분들의 실태 조사를 하여 지원하는 창구가 있었으면 합니다. 연금은 절대로 부정하게 사용하지 말기를 바라고 만약 연금에 손대면 반드시 변상하도록 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인회계감사 실시, 자금이 일개 개인이 유용 못하도록 철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최소한 은급을 활성화하여 은퇴 후 연금 100만 원 이상 되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④ 은퇴자 교육: 현직에서 목회하시기 전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조사하여 은퇴 3년 전부터 개개

인의 재능을 교회와 사회를 위해 일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되면 은퇴 목회자들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재도전 제도를 마련하여 후배들에게 기대려거나 돈 생길 길을 바라 정치판에 의존하거나 혹시 설교를 위해 불러 주기 기대하시는 일은 없을 것이라 본다. 그리고 은퇴 시기는 70이면 되고 여기서 더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욕심입니다.

(6) 현직 목회자 부인의 은퇴 준비를 위한 제언

- ① 건강: 건강하게 살자, 건강을 위하여 젊었을 때부터 힘써야 할 것이다.
- ② 경제: 생활에 어려움이 없이 복음 전 할 수 있게 해주심 은퇴 후 두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소한의 사례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③ 교단: 교단적 차원에서 준비하여 주었으면 바람직하겠고 은퇴의 시기가 좀 당겨 건강할 때 선교사역이나 쉼이 평안할 것 같다. 총회에서 계획을 잘 하셔서 은퇴 후에라도 걱정 없게 해주시면.
- ④ 사역: 사모님들이 계속해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고 전도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주신 달란트(배우고 익혀서 가르치라 하심) 활용하여 땀 흘리는 수고와 전도에 힘쓰고 싶습니다. 선교지를 확보하고
- ⑤ 연금: 생활이 어려워도 연금가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 총회 연금재단은 신뢰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은퇴하시면 모든 분들에 원로 목사님 칭호를 드리면 합니다. 은퇴 후라고 하더라도 주님을 위한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 ⑥ 은퇴준비: 은퇴 후 경제는 사모님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힘쓰다 보니 노후준비가 미약했었다. 경제적으로 준비해야 될 것 같다. 그러기 위하여 저축하며 살아야 하고 운동도 하며 은퇴를 미리부터 기도로 준비해야한다. 평생 주의 사역 감당하였는데 비참합니다.

(7) 장로님들의 은퇴 목사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

- ① 교회에서: 계신 듯 안 계신 듯, 교회사역에서 자유로워지시길, 교회에 간섭을 안 하시길, 담임목사님과 협력하시길, 원거리에서 교회위한 기도를 하시길, 은퇴 후 교회 사역에 깊은 관여치 않으시길. 일 년에 4번 정도 설교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지원(간섭이 아닌)과 협력을 해주시고 후임목회자와 리더십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한다.
- ② 사역: 전도와 선교와 심방에 열정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성장에 따라 목회자 은퇴 후 예후가 결정되니 교회 성장에 온 힘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퇴 후 건강유지, 사역 준비하시어 멋지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현직에서 보다 은퇴 후에도 존경받게 품위유지에 애쓰셨으면 합니다.
- ③ 건강: 체력관리 잘하셔서 건강히 생활하시다 감사와 기쁨으로 하늘나라 가시길 기도합니다.

(8) 장로님들이 총회에 은퇴목회자를 위한 제언

- ① 경제: 일부생활비 보조와 미자립교회 목회자위한 특단의 대책을 제의합니다.
- ② 교단: 총회 차원은 현장을 잘 정리하여 현장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정기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동참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
- ③ 연금: 교단 연금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게 하여 은퇴 후 경제적 준비, 사역 준비, 건강유지하실 수 있도록 교단 차원에 배려가 필요하다

3. 목회자 은퇴 준비를 위하여 설문 조사를 통한 제언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교회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성도들의 수는 감소하고 고령화 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이제라도 은퇴 목회자들이 노후에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총회는 교단 산하 교육 기관 내에 연구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통계청의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183만 원이다. 적정 수준, 즉 어느 정도 노후를 즐기면서 살기위한 금액은 부부 기준 월 264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나라 은퇴 세대들은 전혀 노후 준비가 돼 있지 않다보니 퇴직 후 최소 비용 이하로 생활하는 '은퇴빈곤층' 이 많고,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 1위라는 통계청 발표가 있었다.

특히나 목회자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심각한 현실이다. 그러므로 교단에서는 이제라도 목회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여 사역을 하고 은퇴한 뒤 노후에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연구하는 기구와 행복한 노후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1) 은퇴 목회자와 후임 목회자 청빙에 대한 제언

(1) 개인의 목회에 따라 지원하고 청빙하는 것 보다, 해당 교회의 설립 목적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중점적인 프로젝트에 합당한 은사와 관심과 소신이 있는 교역자를 총회 청빙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선출하고 파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지원서를 내고 성도들이 투표로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다 보면 편견에 의해 편파적으로 결정될 우려가 다분히 있으며 총회가 중심이 될 때 더욱 은혜롭고 힘이 있는 교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은퇴 후를 위해 건강과 재정과 사역을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총회가 파송한 후임 목사와 함께 협력 목회를 3년간 하다가 정년에 은퇴하면 바람직한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익히게 되어 목회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3) 총회 내에 시무목사, 장로 및 원로 목사 동수로 교회 청빙위원회를 두어 예성 초창기처럼 교역자 청빙 및 파송을 원활하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총회의 청빙 위원회에서는 개 교회 운영 매뉴얼과 그 교회의 중점적인 프로젝트를 가지고 목회자를 공정하게 선출하여 파송한다.

2) 현 시무 목회자와 은퇴목회자의 최저 생활비에 대한 제언

(1) 목회자 예우는 총회가 최저 사례비를 호봉제로 정하여 시무 교회 사정에 따라 지급하고 부족한 부분은 총회에서 지원하여 주도록 한다.

(2) 은퇴 목회자 예우는 총회가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 교회는 총회에 경상비의 2%와 담임목사 및 부목사의 십일조를 총회 연금재단에 납입하고 그 액수에 따라 은퇴 후 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러면 교회가 현재처럼 은퇴 목회자 생활비 지급에 부담을 덜 가지게 되고 교단의 입지는 더욱 강화 될 것이다.

(3) 후임 목회자 청빙을 하여 협력 목회 3년 동안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목회 사역에 자문과 협력을 하고, 그 후에는 교회를 떠나 가칭 바이블 랜드(성결선교센터)에서 성도들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운영에 자원봉사하며 공동생활을 한다.

(4) 현행 연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 교회는 총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회 경상비 2%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아울러 목회자의 십일조를 교단은급재단에 납입하여 은퇴목회자가 그 액수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도록 한다. 그러면 은퇴목회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고, 정확한 십일조 납입이 실천될 것이다. 또한 연금제도를 확대하여 교단을 사랑하는 여성 성도들이 누구나 자율적으로 가입을 하고 납입한 액수에 따라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5) 총회가 연구 중인 2%가 실현되면 연금에 가입하여 성실히 연금을 납부한 목회자는 총회 소속 목사가 되어 총회 연금(십일조 납입액)에 따라 생활비를 지급 받고 연금 가입하지 못한 은퇴 목회자들에게도 최저의 생활비를 지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은퇴 목회자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교단은 강화될 것이다.

3) 은퇴목회자 준비에 대한 연구 기관에 대한 제언

(1) 교단 내에 선교, 복지, 교육, 목회, 교단 미래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세우고 활성화될 있도록 물적·인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목회자와 성결대 교수 및 평신도 중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특히나 매년 총회시 임원선거에 많은 비중을 두기보다 다음 세대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연구 발표하는 총회가 되어 미래 목회방향과 은퇴 후 목회자의 예우에 대한 위원회가 필요로 한다.

(2) 이러한 사역을 위하여 장학 재단과 복지 재단을 만들어 인재 양성과 복지 사업을 활성화하여 지역 사회와 연대 할 수 있도록 한다.

(3) 은급재단에서는 부지를 준비하여 수익사업을 한다. 수익 사업으로는 볼거리, 놀거리, 먹거리 쉼터를 만들어 성경을 배워 갈 수 있는 “성결선교센터”, “바이블 랜드”, “요양병원” 등을 설립한다. 개인의 투자를 받아 “성경체험 놀이기구”, “성경음식 카페”, “농촌체험”, “1박 2일 캠프”,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입의 일정액을 선교비로 사용한다. 유급 직원은 소수 인원으로 하고 자원 봉사자 다수(원로 목회자, 장로 및 신학생 등)로 운영하면 수익 사업을 통하여 연금 자산을 늘릴 수 있으리라 본다.

(4) 총회성결교신학교에 은퇴 목회자와 평신도를 위한 강좌를 개설하여 주 1회 다양한 교육과 교제의 장을 만들고 점심은 총회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면 유익하리라 생각한다. (과거 신수동교회에서 월 1회 운영하던 은퇴목회자 부부 모임에서 일터, 쉼터, 꿈터를 운영한바 은퇴자를 위한 모임이 교단차원에 절실 하다 여겨짐)

3) 은퇴 목회자에 대한 제언

(1) 초빙하는 교회나 강의 할 곳이 있다면 건강이 허락 하시는 한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면 섬기던 교회에서 후임 목사가 원하면 모르겠으나 교회 사역에 관여하면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데 저해가 될 수 있으므로 삼가는 것이 좋을 듯하다.

(2) 그 대신에 평상시 연구하고 설교 하던 은혜로운 내용들을 **개인방송국**이나, **페이스북**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면 합니다. 이러한 개인방송국 신설이나 페이스 북 사용방법은 총회신학교나 성결대학 교육원에서 단기 코스로 교육이 가능하며 젊은 자녀들이나 성도들에게 개설 도움을 요청하면 쉽게 실행 가능합니다.

(3) 지금까지 일제치하와 6.25사변과 보릿고개를 거쳐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신 은퇴 목사님들의 기도와 노고로 오늘날 대한민국과 교단이 성장한 것은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라 생각한다. 은퇴

목회자들이 한 번 더 허리띠를 조여 가며 교단과 후배들을 위하여 헌신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단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나가는 글

그동안 교회와 교단을 위하여 기도와 헌신으로 수고하신 은퇴 목사님들의 앞날에 주님의 평안이 넘쳐나실 수 있도록 총회와 온 교회가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가올 고령화 시대와 교회 성도들의 정체와 침체 시대를 기도로 준비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 이므로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기도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 감사합니다. -